

2011 년 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31

에베소서에서

(3)

믿는 이들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분

성경: 엡 3:14-21

- I. 에베소서 3 장 14 절-21 절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신다.
- II.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확산되시어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적셔지고 침투되고 점유되게 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회복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고, 이것은 교회—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으로 확산되심—를 산출할 것이다—6, 10, 16-21 절.
- III. 에베소서 3 장 14 절부터 21 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기도했다. 이것은 영성이 몸의 문제이고, 몸 안에 있으며 몸과 함께하며 몸을 위한 것임을 계시한다—6, 10 절, 4:4-6, 16.
- IV.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러야 한다—3:16.
 - A.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속사람의 생명이다.
 - B. 우리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러야 한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고,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에게 준 능력이다—1:19-22.
 - C. 아버지께서는 내주하시는 영을 통해 우리를 속에서부터 강하게 하신다—3:16.
 - D.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를수록 우리의 내적 존재의 부분들은 더욱더 영 안으로,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되돌려진다—16 절.
- V. 바울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어 그분 자신이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점유하시고 소유하시고 스며드시고 적시시기를 기도했다—17 상.
 - A.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 부분들의 총체이고, 내적 존재의 중심이며, 우리의 경향과 애정과 기쁨과 갈망에 관해서 우리의 대표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속 각 부분에 공급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 B.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서 확산되실수록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을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

- C. 에베소서 2 장에 있는 새사람에 관한 계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지적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한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충만하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1:22-23.
 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으로 퍼지실수록 우리 안에서 더 정착하시고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다—3:17 상.
 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기를, 즉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기를 갈망하시지만 지금은 우리의 영 안에 갇혀 계신다—골 1:27, 딤후 4:22 상.
 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과 연합시키시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기이한 연합으로서 교회를 산출한다—엡 1:22-23, 2:21-22, 3:6, 10, 4:16.
- VI.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골 3:4, 요일 5:11-12.**
- A.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실 때에는 우리의 생명이시지만, 우리의 마음 속으로 확산되실 때에는 우리의 인격이 되신다—엡 3:17 상.
 - B.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그분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확산되시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시는 인격은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일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누가 우리의 마음에 살고 있으며 누가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느냐이다—갈 2:20, 엡 3:17 상.
- VII. 진정한 교회 생활은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결과이다—17-21 절, 4:16.**
- A. 교회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분이신 그리스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골 3:4, 10-11.
 - B.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엡 1:22-23, 3:6, 4:16, 롬 12:4-5, 고전 12:12.
 - C. 교회의 건축에 관한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내적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고 점유하시고 적시시어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하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엡 3:17 상, 1:22-23, 4:16.
 - D. 그리스도의 풍성들은 신진대사적으로 우리의 속으로 동화될 때 우리를 조성하여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표현인 교회가 되게 한다—1:23, 3:8, 19.
 1. 우리의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친밀하게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17-18 절.
 2.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19 절.
 - E. “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21 절.